신앙적 현실주의자 아브람

(창15:1~21)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적 현실주의자 아브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앙적 현실주의자 아브람'
이 '현실주의자'라는 단어는 특별히 제 마음 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된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저만의 좀 쓰라린 경험이 얽혀있어요.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에 박사과정을 위해서 지도교수님을 만나고 선택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간 괴팅겐 대학에서 특별히 철학자들 중에서 칸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같은 신학과 관계 되어서 알면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철학자들에 아주 정통하신 링레벤이라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서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적 철학자를 연구하고 싶어서, 그 철학자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대한 리포트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당신 밑에서 하고 싶으니 제가 쓴 것을 보고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글을 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걸 읽으시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시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거절하신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대한 이해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독일어라는 거예요. 그 독일어 실력으로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겠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까지 나오는 동안에 독일어를 많이 접했지만, 독일어를 주로 읽기만 했지 독일어로 글을 써본 적은 없었어요. 유학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독일어로 작문을 했을 경우에 그 독일어가 박사 학위의 논문을 쓸 정도였겠습니까? 중학생보다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내가 독일어를 읽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을 뿐, 한국에서 독일어를 쓸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나아지지 않겠느냐? 다시 재고해 보실 수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박혀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링레벤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현실주의자(Realist)다.”라고 하셨어요.
‘현실주의자’가 뭡니까?
이 맥락에서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네가 나에게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싶으냐? 그러나 이 글을 통해서 보이는 너의 독일어 실력과 이 글을 통해서 보이는 학문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밑에서 박사학위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막막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주의자가 보는 박사학위논문 지원자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현실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죠.

그런데 주제를 바꾸고 다른 교수님을 선택해서 그 교수님이 받아들였을 때, 그 시간적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지도 교수님이 부쉬 교수님이신데 그 분이 받아들이셨을 때에는 독일어가 많이 나아졌겠습니까? 별 차이 없죠. 그런데 그 분은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을 가지면서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논문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독일어가 칼 라너(Karl Rahner, 1904-1984)의 독일어 문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칼 라너가 누구냐?
우리가 교회연합운동을 할 때에 그리스정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여러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을 대표했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야 말로 철학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칼 라너의 문체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체 같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불과 3년 반 정도 만에 논문을 완성했을 때인데.
리얼리스트가 볼 때에 도저히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3년 반 지났는데 칼 라너의 독일어 문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기 좀 민망하네요.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주의자예요. 꿈만 먹고 사는 사람.
이상주의자에게서 나타나는 병폐는 꿈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주의자의 병폐는 개선의 여지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사실에서 판단의 생각과 근거와 계획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주의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상주의자가 미래에 더 나아지는 상황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지만, 현실주의자도 그에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현실주의자의 미래와 이상주의자의 미래가 다른 것이, 이상주의자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계속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의 미래는 지금의 상황이 좋다면 미래를 밝게 봅니다. 지금 주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좋으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의 상황이 나쁘면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고 한 인격인데도 이상주의자적인 성향을 띨 때도 있고, 현실주의자적인 성향을 띨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아브람은 이런 범주의 현실주의자도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현실주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신앙적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적 현실주의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아브람처럼 신앙적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지금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아닌 신앙적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적 현실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람이 참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한가?

1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고 자주 성경에서 접하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2절에 “…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하고 3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합니다.

“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에서 “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상하냐?

어쨌거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12: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처음에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셨고, 13:14-16절에서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라고 티끌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거듭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맡아서 돌보고 있는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75세에 약속을 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고, 이제 다음 장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꼭 사람이 삐쳐서 어깃장 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관둡시다. 그냥 내 집에 있는 집사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자식이요? 10년이 지나도록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하시는 것입니까? 내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사래도 경수가 이미 끊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그래요.

15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자식에게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자식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 후대에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땅이 내 것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이외의 다른 보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 약속을 합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갔고 너는 재수하는데, 이번에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경비 다 대서 2박 3일로 우리 여행 떠나자.”라고 하면 거기에 증서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믿는 것이죠.
하물며 신실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거기다대고 ‘미래에 이 땅이 내 자손들의 땅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할 일입니까?
우리 같이 믿음이 천박한 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람의 신앙적 현실주의자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신앙적 현실주의자’
신앙적 현실주의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람은 마음의 생각이 지금 주어진 사실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나오기 전까지 두 번 말씀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도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뭡니까?
그 옛날에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닌데 내 자손과 내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브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주셔도, 아브람의 마음이 미래로 가질 못합니다. 미래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래로 마음이 가야 현실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람의 마음은 항상 지금에 묶여 있어서 그 미래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을 네게 준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 땅이 미래에 내 땅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게 될 미래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을 주신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내 마음은 지금 여기 밖에는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람 마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이라는 아브람을 끌고 가서, 네 몸에서 나올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중동 땅에 공해도 없고 가로등도 없을 때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잘 보이고 많았겠어요? 빼곡하게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아브람이 믿었다고 해요. 우리가 거기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람의 현실주의자적 기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시는데, 아브람이 뭘 믿었겠습니까?
믿었다는 것이 뭐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람은 미래에 자기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미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미래로 가야합니다.
'아! 내 미래에는 내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겠구나.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참아야지. 왜냐하면 미래가 있으니까. 내 자손들이 별처럼 많은 미래가 있으니 자손이 없는 지금을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아브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하시는 미래의 내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붙잡으려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아브람을 만나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그 특징은 나를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시고 관계하십니까?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지금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지금에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으로만 만날 수 있으니 아브람의 마음은 지금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지금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사실 밖에는 없는 거예요.
미래에 땅을 준다고 해도 땅은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마음이 지금 땅이 안 주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나는 지금 여기 밖에는 못 보고, 미래를 못 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의 계약방식대로 동물들을 가져다가 의식을 행하자고 하시고, 그것을 보면 그것이 미래의 네가 얻을 땅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예언을 반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야단을 치셔야 하는데, 야단을 치시지 않아요.
미래에 땅을 줄 것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땅을 얻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 내가 말하면 그것으로 보증수표지 뭘 딴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러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브람의 모든 대꾸에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즐겨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이러한 내용을 아브람의 신앙적 현실주의자적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무엇에 대한 방패입니까?
포괄적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1장에 말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내 삶이 혼돈으로 덮여 버리고, 공허로 덮여 버리고,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에 빠지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패는 언제 내 손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이 방패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방패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10년 동안은 방패 없이 살아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람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급인 하나님을 확대해서 본문과 연관 지어서 이해하자면, 아브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별처럼 많고 티끌처럼 많은 자손도 상급이 아니고, 애굽 북단에서부터 유브라데강 북쪽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의 땅도 상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입니다.

아브람에게 주시는 상급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티끌처럼 많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상급은 나다. 그러나 너의 방패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방패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될 때에 내 인생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까? 체면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자랑이 보존되는 것이고, 자부심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상급이신 그 상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마음이 지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이에는 바늘 끝 하나가 들어갈 틈새가 없는 겁니다. 아브람의 마음은 지금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주의자들이 지금에 마음이 딱 붙어있는 이유와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현실주의자들은 지금에 딱 붙어있어서 지금으로부터 생각하고, 지금으로부터 삶을 출발시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지금에 붙어있는 이유가 현실주의자인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전화가 있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만날 때에 복잡한 곳에서 두 사람이 다 움직이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그곳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급이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에 머물러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머물러 있다 보니 지금의 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셀이 유일한 상속의 가능성이지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상속자로 삼자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람의 마음이 지금에 붙어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아브람에게는 미래가 없느냐?
아브람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의 미래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자기의 복된 미래, 땅을 얻고 자손을 얻는 미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기 때문에 그 상급인 하나님과 딱 달라붙고, 밀착되는 바람에 미래가 마음속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마음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준다고 해도 '내가 지금 미래에 얻을 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요.
무슨 이야기냐?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일도양단 된 동물처럼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한 겁니다. 그 계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지금 밖에는 모르니까.
지금 밖에 모르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브람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미래에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한다든지, 자손이 훌륭하게 되는 혈통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미래를 딱 붙잡고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두고 보자. 나를 우습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여, 미래의 나를 칭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미래를 딱 붙잡을 텐데…
아브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붙잡느라고 미래가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 현실주의 말고는 나를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갑니다.
'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시겠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미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이 자꾸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것은 현재 여기서 내 상급인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족하고, 자식이 없어서 부족하고, 건강 때문에 부족합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상급인 여호와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마세요. 이상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지금 부족하다는 것에서 생각을 출발하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지금을 바라보는 이유는 세상의 현실주의자처럼 지금이 다인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라야만 하나님아버지를 내 상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부족이 부족이 아닌 이유는, 아브람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족할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내 상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상급이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현실주의이자, 아브람의 참으로 지독한 하나님과의 틈새 없는 밀착된 모습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는 이상주의자적 성향도, 주어져있는 이 땅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려는 현실주의자적인 성향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직 아브람처럼 신앙적 현실주의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